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김 은 희(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

김 정 옥(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교수)

1.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오늘날 가족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애정과 친밀감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안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김재엽, 1999). 가족원들간에 긴장과 갈등이 늘어나고 남녀의 성차이와 부모 - 자녀간의 세대차이는 가족내에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족폭력의 문제를 야기시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을 가정폭력의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

1998년에 실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규모 전화조사에 따르면, 전체 1400만 가구 중 2.6%에 해당하는 33만 8천 가구에서 자녀학대 및 폭력이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율은 낮아도 수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녀 인구가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은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폭력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주장과 지속적인 학대의 경험은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의 상실, 파괴적인 행동, 학교적응의 어려움 등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고 Green(1985)은 지적하고 있다.

자녀학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1986년 「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창립되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최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여, 점차적으로 자녀학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2000년 7월 13일 아동학대방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의 시행으로 자녀학대 행위에 대해 법의 처우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 10월 5일부터 개통된 「아동학대신고 전화 1391」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직권으로 학대부모와 아동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내 자녀폭력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주로 아동학대에 집중되어 왔고 ‘청소년’은 비교적 간과되어온 연령집단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을 가족 외부로 분출할 가능성이 어린 영유아나 아동에 비해 더 높으며, 특히 부모의 폭력에 대한 적극적 반응으로 가출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이경희, 1999).

부모들은 신체적으로 성장한 자녀에게 신체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비신체적 학대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명문대생 이군의 부모 토막살인사건’(조선일보 2000, 5, 25)으로 그 잔혹함이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던 패륜범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그 역시 애정이 없는 부모의 구타와 특히, 경멸적이고 거부적인 부모의 말투와 같은 언어적 학대를 경험해오면서 억눌린 분노와 공격성이 한순간에 부모에게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업계와 일반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과 비행에 관련해 형사법에 의한 처벌과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신체적·언어적 학대의 현황을 각 유형별로 실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학대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학대적인 양육태도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선도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하며, 나아가 건강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신체적, 언어적 학대)와 청소년의 비행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의 비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일반 및 실업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여 청소년 300명과 현재 대구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하에 있는 남·여 청소년 100명, 총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를 제외하여 각각 258명과 84명, 총 258명의 자료만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녀학대척도(신체적, 언어적 학대)

본 연구에서 자녀학대의 척도는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 척도, 권자영(1991), 채혜정(1993), 고성혜(1993)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도구는 신체적 학대 11문항, 언어적 학대 2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서는 그 빈도에 따라 전혀없다, 1년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에 답하도록 5점 척도화(1~5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학대척도는 요인분석하여 경미한 학대, 심한 학대의 2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었고, 언어적 학대척도는 원망 및 경멸, 거부, 위협 및 적대의 3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이 신체적 학대 .78, 언어적 학대 .92로 나타나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비행 척도

청소년 비행 척도는 청소년의 숨은 비행과 비행형태를 고려하여 척도를 제작한 이미경(1995)의 자기보고식 비행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다시 수정, 제거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은 폭력·일반지위·사회질서·성·재산비행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인 것으로 비교적 높았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9.0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분석, Cornbach's의 α 검증, t-test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학대의 경향

1) 신체적 학대 경향

(1) 신체적 학대 빈도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의 하위영역별 경험빈도와 백분율은 <표 1> 과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에 나타난 전체 신체학대의 빈도는 신체적 학대 총 11문항에서 전문항 모두 '전혀없다'에 응답하여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의 빈도와 그 외 적어도 1문항이상에서, 1년에 1번이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일반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빈도

유형	신체적 학대	일반 청소년									
		아버지(N=259)					어머니(N=259)				
		전혀 없다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전혀 없다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I. 경미한 학대	화초리나 자로 손바닥,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다.	127 (50.2)	108 (42.7)	16 (6.3)	2 (.8)	.	133 (52.6)	93 (36.8)	25 (9.9)	2 (.8)	.
	나에게 주위에 있는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207 (81.8)	38 (15.0)	6 (2.4)	2 (.8)	.	218 (86.2)	26 (10.3)	7 (2.8)	2 (.8)	.
	움켜(먹살) 잡히거나 떠밀린 적이 있다.	217 (86.1)	27 (10.7)	5 (2.0)	3 (1.2)	.	232 (92.1)	14 (5.6)	6 (2.4)	.	.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적이 있다.	166 (65.6)	75 (29.6)	10 (4.0)	1 (.4)	1 (.4)	196 (77.3)	48 (19.0)	7 (2.8)	2 (.8)	.
	발로 차이거나 물어뜯긴 적이 있다.	230 (91.6)	14 (5.6)	6 (2.4)	1 (.4)	.	235 (93.3)	10 (4.0)	7 (2.8)	.	.
	매를 맞아서 멍, 코피가 난 적이 있다.	205 (81.0)	43 (17.0)	5 (2.0)	.	.	220 (87.0)	25 (9.9)	7 (2.8)	1 (.4)	.
II. 심한 학대	손뼉을 마구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232 (91.7)	18 (7.1)	2 (.8)	1 (.4)	.	240 (95.2)	10 (4.0)	2 (.8)	.	.
	담뱃불 등으로 지저진 적이 있다.	252 (99.6)	1 (.4)	.	.	.	253 (100)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 당한 적이 있다.	250 (99.2)	2 (.8)	.	.	.	250 (98.8)	3 (1.2)	.	.	.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251 (99.2)	2 (.8)	.	.	.	252 (99.6)	1 (.4)	.	.	.
	매를 맞아서 이빨이 빠지거나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251 (99.2)	2 (.8)	.	.	.	253 (100)
전체신체학대		88 (35.3)	161 (64.7)			110 (44.0)	140 (56.0)				

<표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빈도

유형	신체적 학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아버지(N=84)					어머니(N=84)				
		전혀 없다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전혀 없다	1년에 1-2번	1달에 1-2번	1주에 1-2번	거의 매일
경미한 학대	회초리나 자로 손바닥,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다.	38 (47.5)	29 (36.3)	8 (10.0)	3 (3.8)	2 (2.5)	38 (60.3)	16 (25.4)	6 (9.5)	2 (3.2)	1 (1.6)
	나에게 주위에 있는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53 (66.3)	19 (23.8)	2 (6.3)	1 (2.5)	1 (1.3)	55 (87.3)	5 (7.9)	3 (4.8)	.	.
	움켜(먹살) 잡히거나 떠밀린 적이 있다.	53 (66.3)	17 (21.3)	7 (8.8)	2 (2.5)	1 (1.3)	58 (92.1)	4 (6.3)	1 (1.6)	.	.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적이 있다.	39 (49.4)	29 (36.7)	8 (10.1)	3 (3.8)	.	48 (77.4)	10 (16.1)	4 (6.5)	.	.
	발로 차이거나 물어뜯긴 적이 있다.	65 (81.3)	9 (11.3)	3 (3.8)	1 (1.3)	2 (2.5)	62 (98.4)	1 (1.6)	.	.	.
	매를 맞아서 멍, 코피가 난 적이 있다.	57 (71.3)	16 (20.0)	4 (5.0)	2 (2.5)	1 (1.3)	57 (90.5)	6 (9.5)	.	.	.
심한 학대	온몸을 마구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	62 (77.5)	11 (13.8)	4 (5.0)	1 (1.3)	2 (2.5)	60 (95.2)	3 (4.8)	.	.	.
	담뱃불 등으로 지저진 적이 있다.	79 (98.8)	1 (1.3)	.	.	.	63 (100)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 당한 적이 있다.	75 (93.8)	5 (6.3)	.	.	.	62 (98.4)	1 (100)	.	.	.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77 (96.3)	2 (2.5)	1 (1.3)	.	.	63 (100)
	매를 맞아서 이빨이 빠지거나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78 (97.5)	2 (2.5)	.	.	.	63 (100)
전체신체학대		25 (31.6)	54 (68.4)			34 (54.8)	28 (45.2)				

부모에 의한 청소년 자녀의 신체적 학대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청소년의 경우 응답한 전체 청소년의 64.7%가 아버지로부터, 56.0%는 어머니로부터 적어도 1년에 1번이상의 신체적 학대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68.4%가 아버지로부터, 45.2%는 어머니로부터 경미한 학대에서 심한 학대에 걸쳐 1년에 1번이상의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험 유무로 보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구타를 경험한 자녀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았고, 어머니로부터의 신체적 학대는 일반 청소년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신체적 학대의 하위유형을 보면 경미한 학대에서는 회초리나 자로 손바닥, 종아리를 맞은 식의 체벌형태의 학대가 가장 많았고, '얼굴, 머리, 뺨 등을 맞은 적' 문항과 심한 학대에서는 '온몸을 마구 두들겨 맞은 적' 문항이 자녀들이 자주 경험하는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를 맞아서 멍, 코피가 난 적이 있다'의 구타결과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5%가량이 어머니로부터 경험이 있는 것과 달리 그 3배정도의 28.7%정도가 아버지로부터

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경미한 학대가 단순한 체벌의 의미를 넘어선 폭력으로서의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체벌이나 구타를 이용하여 그들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고치고 훈련하려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또한 폭력의 정당성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체적 학대 집단간 차이

다음은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신체적 유형별 학대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3> 신체적 학대 집단간 차이

학 대 \ 집 단		일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집단간차이 t-value
		M	SD	M	SD	
경미한 학대	부	1.28	.38	1.53	.66	4.26***
	모	1.24	.39	1.21	.34	-.47
심한 학대	부	1.03	.	1.10	.24	4.35***
	모	1.01	.	1.01	.	-.19
전체 신체학대	부	1.15	.22	1.32	.42	4.54***
	모	1.12	.21	1.11	.18	-.43

* p <.05 ** p <.01 *** p <.001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신체적 자녀학대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신체적 학대 하위유형 및 전체신체학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두 집단간 신체적 학대의 차이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서 일반 청소년보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더 많은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학대가 더 높았지만 유의미성은 없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행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와, 특히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들을 미루어볼 때, 일관성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2) 언어적 학대 경향

(1) 언어적 학대 빈도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언어적 학대의 하위영역별로 경험빈도와 백분율은 <표 4>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에 나타난 전체 언어학대의 빈도는 언어적 학대 총 20문항에서 전 문항 모두 '전혀 없다'에 응답하여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의 빈도와 그 외 적어도 1문항 이상, 1년에 1번 이상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에 의한 언어적 자녀학대를 경험의 유무로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의 46.2%가 아버지로부터, 58.8%가 어머니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은 아버지로부터 82.3%정도가, 어머니로부터 77.6%가량이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언어적 학대의 유형별로는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모두 부모는 원망 및 경멸, 위협 및 적대, 거부적 언어학대의 순으로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꼴 좋다, 잘 논다, 겨우 한다는게 그거냐', '너같은 아이는 꼴도 보기 싫다'식의 자녀에게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인 언어와 '이 XX야'라는 식의 욕설의 위협 및 적대적인 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 청소년의 언어적 학대 빈도

유형	언어적 학대	일반 청소년										
		아버지(N=258)					어머니(N=255)					
		전혀 없다	1년에 1-2번	3-4번	5번 이상	거의 없다	1년에 1-2번	3-4번	5번 이상	거의 없다	1년에 1-2번	3-4번
위험 및 계단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	228 (90.1)	17 (6.7)	4 (1.6)	2 (.8)	2 (.8)	211 (83.1)	31 (12.2)	8 (3.1)	2 (.8)	2 (.8)	2 (.8)
	이 수유아, 마보, 임침이, 병신 같은 것	225 (88.9)	19 (7.5)	6 (2.4)	2 (.8)	1 (.4)	208 (82.2)	31 (12.3)	8 (3.2)	6 (2.4)	1 (.4)	1 (.4)
	너 때문에 집안 일이 잘 안 풀린다.	240 (94.9)	8 (3.2)	3 (1.2)	3 (1.2)	1 (.4)	235 (93.3)	12 (4.8)	4 (1.6)	1 (.4)	1 (.4)	1 (.4)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220 (87.0)	27 (10.7)	4 (1.6)	4 (1.6)	1 (.4)	200 (79.1)	35 (13.8)	13 (5.1)	3 (1.2)	3 (1.2)	3 (1.2)
	나는 우리 집안의 꼴치 당어러이다.	212 (83.8)	27 (10.7)	6 (2.4)	5 (2.0)	2 (.8)	196 (77.2)	39 (15.4)	12 (4.7)	2 (.8)	5 (2.0)	5 (2.0)
	꽃 좋다. 잘 논다. 겨우 한다는 게 그거나	204 (80.6)	31 (12.3)	9 (3.6)	7 (2.8)	2 (.8)	175 (68.9)	58 (22.8)	11 (4.3)	6 (2.4)	4 (1.6)	4 (1.6)
	너 같은 아이는 잘못도 보기 싫다	201 (79.4)	44 (17.4)	1 (.4)	3 (1.2)	1 (.4)	184 (72.4)	50 (19.7)	16 (6.3)	4 (1.6)	4 (1.6)	4 (1.6)
	내가끼어 오지 마라	247 (98.0)	4 (1.6)	1 (.4)	1 (.4)	1 (.4)	245 (95.5)	5 (2.0)	4 (1.6)	1 (.4)	1 (.4)	1 (.4)
	너 같은 자식들 돈 적이 없다	235 (93.3)	14 (5.6)	2 (.8)	1 (.4)	1 (.4)	241 (94.9)	9 (3.5)	4 (1.6)	1 (.4)	1 (.4)	1 (.4)
	너 같은 애는 너무 키우기 힘들어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238 (94.1)	9 (3.6)	2 (.8)	2 (.8)	1 (.4)	228 (89.9)	16 (6.3)	9 (3.5)	1 (.4)	1 (.4)	1 (.4)
위험 및 계단	너 같은 아이는 정떨어진다. 지겹다	242 (95.7)	7 (2.8)	1 (.4)	1 (.4)	1 (.4)	237 (93.3)	11 (4.3)	4 (1.6)	1 (.4)	1 (.4)	1 (.4)
	나가 죽어라	230 (90.9)	16 (6.3)	5 (2.0)	4 (1.6)	1 (.4)	214 (84.6)	29 (11.5)	9 (3.6)	1 (.4)	1 (.4)	1 (.4)
	너를 괜히 낚았다	227 (89.7)	17 (6.7)	7 (2.8)	4 (1.6)	1 (.4)	208 (81.9)	33 (12.8)	13 (5.1)	2 (.8)	2 (.8)	2 (.8)
	너를 죽여 버릴까보다	245 (97.2)	3 (1.2)	2 (.8)	2 (.8)	1 (.4)	247 (97.6)	5 (2.0)	1 (.4)	1 (.4)	1 (.4)	1 (.4)
	너를 판야버려야겠다	249 (98.4)	3 (1.2)	1 (.4)	1 (.4)	1 (.4)	250 (98.4)	3 (1.2)	1 (.4)	1 (.4)	1 (.4)	1 (.4)
	너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짓도 사주지 않을꺼야	236 (94.0)	9 (3.6)	4 (1.6)	1 (.4)	1 (.4)	234 (92.5)	16 (6.3)	8 (3.2)	1 (.4)	1 (.4)	1 (.4)
	이 XX야, 라는 식의 속절	213 (84.2)	27 (10.7)	8 (3.2)	3 (1.2)	2 (.8)	220 (87.0)	19 (7.5)	8 (3.2)	5 (2.0)	5 (2.0)	5 (2.0)
	너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법이 없구 나. 도대체 버리질 쓸 줄을 모르면 말야	214 (84.6)	25 (9.9)	9 (3.6)	8 (3.2)	3 (1.2)	207 (81.2)	28 (11.0)	11 (4.3)	5 (2.0)	3 (1.2)	3 (1.2)
	당장 집에서 나가	216 (85.4)	26 (10.3)	8 (3.2)	3 (1.2)	2 (.8)	211 (83.1)	34 (13.4)	5 (2.0)	3 (1.2)	3 (1.2)	3 (1.2)
	너 때문에 내가 도망가버려야겠다	243 (96.0)	7 (2.8)	1 (.4)	1 (.4)	1 (.4)	245 (98.9)	18 (7.1)	6 (2.4)	2 (.8)	2 (.8)	2 (.8)
전체 언어학대	134 (53.8)	115 (46.2)	103 (41.5)	145 (58.5)	145 (58.5)	103 (41.5)	115 (46.2)	103 (41.5)	145 (58.5)	145 (58.5)	145 (58.5)	

〈표 5〉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언어적 학대 빈도

유형	언어적 학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아버지(N=284)					어머니(N=284)					
		전혀 없다	1년에 1-2번	3-4번	5번 이상	거의 없다	1년에 1-2번	3-4번	5번 이상	거의 없다	1년에 1-2번	3-4번
위험 및 계단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	48 (60.0)	25 (31.3)	3 (3.8)	1 (1.3)	3 (3.8)	45 (71.4)	15 (23.8)	1 (1.6)	1 (1.6)	1 (1.6)	2 (3.2)
	이 수유아, 마보, 임침이, 병신 같은 것	60 (75.0)	15 (18.8)	3 (3.8)	1 (1.3)	1 (1.3)	49 (77.8)	10 (15.9)	2 (3.2)	1 (1.6)	1 (1.6)	1 (1.6)
	너 때문에 집안 일이 잘 안 풀린다.	66 (82.5)	10 (12.5)	2 (2.5)	2 (2.5)	2 (2.5)	51 (81.0)	10 (15.9)	1 (1.6)	1 (1.6)	1 (1.6)	1 (1.6)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55 (68.8)	19 (23.8)	1 (1.3)	2 (2.5)	3 (3.8)	44 (69.8)	16 (25.4)	1 (1.6)	1 (1.6)	1 (1.6)	1 (1.6)
	나는 우리 집안의 꼴치 당어러이다.	50 (62.5)	23 (28.7)	3 (3.8)	1 (1.3)	3 (3.8)	37 (58.7)	16 (25.4)	7 (11.1)	1 (1.6)	1 (1.6)	1 (1.6)
	꽃 좋다. 잘 논다. 겨우 한다는 게 그거나	38 (47.5)	30 (37.5)	7 (8.8)	1 (1.3)	4 (5.0)	35 (55.6)	21 (33.3)	5 (7.9)	1 (1.6)	1 (1.6)	1 (1.6)
	너 같은 아이는 잘못도 보기 싫다	35 (44.3)	33 (41.8)	7 (8.9)	2 (2.5)	2 (2.5)	35 (55.6)	22 (34.9)	4 (6.3)	1 (1.6)	1 (1.6)	1 (1.6)
	내가끼어 오지 마라	75 (93.8)	3 (3.8)	1 (1.3)	1 (1.3)	1 (1.3)	60 (96.2)	2 (3.2)	2 (3.2)	1 (1.6)	1 (1.6)	1 (1.6)
	너 같은 자식들 돈 적이 없다	68 (85.0)	7 (8.8)	2 (2.5)	1 (1.3)	1 (1.3)	52 (82.5)	10 (15.9)	1 (1.6)	1 (1.6)	1 (1.6)	1 (1.6)
	너 같은 애는 너무 키우기 힘들어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68 (85.0)	7 (8.8)	2 (2.5)	1 (1.3)	2 (2.5)	54 (85.7)	8 (12.7)	1 (1.6)	1 (1.6)	1 (1.6)	1 (1.6)
위험 및 계단	너 같은 아이는 정떨어진다. 지겹다	77 (96.3)	2 (2.5)	1 (1.3)	1 (1.3)	1 (1.3)	59 (93.7)	3 (4.8)	1 (1.6)	1 (1.6)	1 (1.6)	1 (1.6)
	나가 죽어라	57 (71.3)	13 (16.3)	5 (6.3)	3 (3.8)	2 (2.5)	47 (74.6)	11 (17.5)	2 (3.2)	1 (1.6)	1 (1.6)	2 (3.2)
	너를 괜히 낚았다	68 (85.0)	6 (7.5)	2 (2.5)	2 (2.5)	2 (2.5)	50 (79.4)	10 (15.9)	1 (1.6)	1 (1.6)	1 (1.6)	1 (1.6)
	너를 죽여 버릴까보다	77 (96.3)	2 (2.5)	1 (1.3)	1 (1.3)	1 (1.3)	62 (98.4)	1 (1.6)	1 (1.6)	1 (1.6)	1 (1.6)	1 (1.6)
	너를 판야버려야겠다	78 (97.5)	1 (1.3)	1 (1.3)	1 (1.3)	1 (1.3)	62 (98.4)	1 (1.6)	1 (1.6)	1 (1.6)	1 (1.6)	1 (1.6)
	너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짓도 사주지 않을꺼야	75 (93.8)	4 (5.0)	1 (1.3)	1 (1.3)	1 (1.3)	54 (85.7)	6 (9.5)	3 (4.8)	1 (1.6)	1 (1.6)	1 (1.6)
	이 XX야, 라는 식의 속절	48 (60.0)	20 (25.0)	3 (3.8)	6 (7.5)	3 (3.8)	51 (81.0)	10 (15.9)	1 (1.6)	1 (1.6)	1 (1.6)	1 (1.6)
	너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법이 없구 나. 도대체 버리질 쓸 줄을 모르면 말야	58 (72.5)	19 (23.8)	2 (2.5)	2 (2.5)	1 (1.3)	52 (82.5)	7 (11.1)	2 (3.2)	2 (3.2)	2 (3.2)	2 (3.2)
	당장 집에서 나가	54 (67.5)	19 (23.8)	3 (3.8)	2 (2.5)	2 (2.5)	51 (81.0)	9 (14.3)	2 (3.2)	1 (1.6)	1 (1.6)	1 (1.6)
	너 때문에 내가 도망가버려야겠다	72 (90.0)	5 (6.3)	1 (1.3)	1 (1.3)	1 (1.3)	51 (82.3)	9 (14.5)	1 (1.6)	1 (1.6)	1 (1.6)	1 (1.6)
전체 언어학대	14 (17.7)	65 (82.3)	14 (22.6)	48 (77.6)	48 (77.6)	14 (22.6)	65 (82.3)	48 (77.6)	48 (77.6)	48 (77.6)	48 (77.6)	

(2) 언어적 학대 집단간 차이

다음은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두 집단 간의 차이와 부와 모의 차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고, t-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간 차이의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언어적 학대 집단간 차이

학 대		집 단	일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집단간차이 t-value
			M	SD	M	SD	
언어적 학대	원망 및 경멸	부	1.20	.47	1.53	.66	4.83***
		모	1.30	.49	1.47	.74	2.24*
	거부	부	1.10	.33	1.26	.60	3.08**
		모	1.14	.29	1.22	.56	1.78
	위협 및 적대	부	1.13	.34	1.30	.43	3.63***
		모	1.18	.35	1.23	.30	.94
전체언어학대		부	1.14	.33	1.36	.48	4.62***
		모	1.21	.34	1.31	.49	2.00*

* p <.05 ** p <.01 *** p <.001

부모의 언어적 학대의 평균을 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많이 언어적 학대를 하는 것으로 학대의 경험을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집단간 부모의 언어적 학대의 차이를 보면, 부·모 모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의 언어적인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과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를 살펴 본 정명희(1987)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일방적이거나 권위적일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소극적 형태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이 더욱 증가된다고 하였으며 부-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보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더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비난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힌 강현미(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비교해보면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가 더 많이 일어난 김혜련(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Mario(1983)는 정서적 학대를 받는 자녀의 연령이 신체적 학대아의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높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고성혜(1992)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때 방어할 힘이 있는 신체적으로 성숙한 자녀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린 자녀는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2. 청소년의 비행 경향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 청소년의 비행 경향

비행	일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집단간차이 t-value
	M	SD	M	SD	
폭력 및 일반지위비행	1.51	.52	2.04	.57	7.74***
사회질서비행	1.22	.40	2.03	.67	13.39***
성비행	1.10	.38	1.36	.51	4.98***
재산비행	1.19	.	1.40	.45	4.72***
전체비행	1.25	.	1.71	.43	10.40***

*** p <.001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전반적인 비행 경향을 보면, 폭력 및 일반지위비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회질서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의 순으로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므로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지향하는 면이 강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청소년은 이미 중한 정도의 비행으로 소년법에 의해 법의 처우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 청소년보다는 비행이 높았고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신체적·언어적 학대와 비행과의 관계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신체적·언어적 학대 유형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신체적 자녀학대와 비행과의 상관관계

〈표 8〉 신체적 학대와 비행과의 상관관계

학대		비행	전체비행	
			일반	보호
경미한 학대	부	.26***	.42***	
	모	.10	.12	
심한 학대	부	.30***	.51***	
	모	.08	.29	
전체 신체학대	부	.29***	.47***	
	모	.11	.16	

** p <.01 *** p <.001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신체적 학대와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와 청소년비행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 결과는 신체적인 학대, 즉 그 정도가 경미한 것은 물론 심한 학대 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언어적 자녀학대와 비행과의 상관관계

〈표 9〉 언어적 학대와 비행과의 상관관계

학대		비행	전체비행	
			일반	보호
원망 및 경멸	부	.39***	.40***	
	모	.38***	.08	
거부	부	.38***	.31**	
	모	.38***	.07	
위협 및 적대	부	.32***	.59***	
	모	.40***	.23	
전체 언어학대	부	.40***	.50***	
	모	.41***	.11	

** p <.01 *** p <.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비행과의 상관관계는 두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부모 모두의 언어적 학대가 청소년의 비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는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만이 청소년의 비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언어적인 폭력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훈육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위해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써 대신한다면 비교적 더 나은 부모라는 신념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행위에 있어서는 부모가 하는 언어적 학대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1) 일반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일반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투입방식(Stepwise)를 이용한 중회귀분석(Multiple Reger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정형편 인식정도, 자녀의 종교, 부모의 직업, 부모의 종교, 가족형태는 dummy변수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들끼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의 전체신체 학대와 전체언어 학대변수는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다중공선성 여부를 보기 위해 DW(Durbin-Watson)계수, 분산확대지수(VIF)를 산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일반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10> 와 같다.

<표 10> 일반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체비행	
				B	β
사회인구 학적변인	나이		.	.24**	
언어적 학대	거부	부	.25	.26***	
	위협 및 적대	모	.28	.31***	
R ²				.306	
F-value				22.24***	

** p <.01 *** p <.001 , δ dummy 변수화

일반 청소년은 어머니의 위협 및 적대적인 언어학대 변인이 청소년의 전체비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거부적인 언어학대, 자녀의 연령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언어학대를 많이 할수록,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거부적인 언어학대를 많이 할수록 일반 청소년의 비행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 위협받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일탈과 비행을 저지르는 정서적인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언어적 학대변인에 이어 세 번째로 일반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청소년의 연령이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적·공간적 활동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자연이 비행에 노출되는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됨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1>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전체비행	
			B	β
사회인구학적변인	δ 부직업 전문직 (자영업=0)		.61	.36*
언어적 학대	위협 및 적대	모	.66	.48**
R ²			.350	
F-value			6.19**	

* p <.05 ** p <.01 δ = dummy 변수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전체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역시 어머니의 위협 및 적대적인 언어학대와 아버지의 직업이었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전체 비행은 어머니로부터 위협 및 적대적인 언어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비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가 자영업일 경우보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은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모두 부모로부터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언어 학대를 경험할수록 비행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불안하게 조성하고 물리적 위협을 하거나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자극을 주어 일탈이나 문제행동 또는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일반 청소년 및 비행청소년을 지도함에 있어 청소년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지도와 더불어 부모들도 교육에 참여시켜서 청소년의 비행경

로를 차단한다면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예방적 차원에서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학대의 예방을 위한 부모의 분노조절훈련이나 갈등해결 방법, 특히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자녀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 청소년들은 학교기간을 통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양육태도를 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재발을 위해서는 그 어떤 환경이나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시됨으로, 가족환경 사항을 잘 살펴 부모의 학대가 있는 가정에서는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학대의 피해자인 청소년들의 차별적인 선도교육의 개입으로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체계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 중 청소년의 비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아버지의 자녀학대변인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국한되어온 부모교육에 아버지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같은 결론은 본 연구가 지닌 다음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실업계 중·고등학생 남녀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으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부모에 의한 청소년 자녀학대를 측정하는데 있어 자녀만을 대상으로 학대정도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대에 대한 지각정도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고, 동일한 문제를 자녀와 부모가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보고하는지를 비교하여 응답주체에 따른 차이점도 조사하는 자녀학대의 다각적인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학대의 유형 중에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만을 다루었는데, 학대의 다른 유형인 성적 학대와 방임도 포함하여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 및 실업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과 법의 처우를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집단의 부모의 자녀학대를 비교해봄으로써 자녀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밝혀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언어적 학대가 청소년의 비행과의 관계에 있어 신체적 학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부모 중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행이 매우 관련이 높다는 결과로 청소년 자녀학대 연구를 위한 방향제시와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내 부모역할 및 부모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비행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정환경 개입의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1998).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의 부적응.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강미자(2000).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강현미(1999).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문제행동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3-155.
- 김재엽·조학래(1998).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회 한국아동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 노길미(199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학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김유경(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

- 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113-135.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희·배희분(1999). 부모의 의한 청소년 자녀폭력 사례연구와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 입소생을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5-43 .
- 이미경(1995). 충동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춘화(1999). 청소년 폭력가해자와 가해집단에 관한 연구(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선일보(2000. 5. 25). [전문가진단] 억눌린 분노-공격성 부모에 순간 폭발.
- 채혜정(1993).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부모, 자녀, 전문가의 지각. 숙명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1998). 가정내 세대간 폭력과 청소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Green, A.(1985),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Shaffer, D., Ehrharot, A. A., & Greenhill, L.L.(Eds), New York: The Free pree.
- Mario, D. T.(1983), Injur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Children, 31, 147-152.
- Straus, M. A. & Gelles, R. 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